

七月十二日……서울驛發(再建號便) 金泉驛下車——叫——스便。로 善山邑內着
——善山面事務所建物調査——邑內諸遺物(前高麗三重大臣領門下侍中諡順忠公
金宣弓遺墟碑、有明朝鮮丹溪河先生遺墟碑 圓覺寺木造菩薩坐像——碑石街諸碑石
——郷校)——善山邑內泊

七月十三日……邑內發——水多寺(建物、木造阿彌陀如來坐像、石塔、浮屠、幀畫乾
隆三十七年銘銅鍾)——明月堂寺址——丹溪河先生墓——邑內碑石街里——邑內泊
七月十四日……邑內發——院洞의 金鳥書院(諸縣板과 建物 및 그 配置)——降雨
로 上京

八月十七日……서울驛發(再建號便) 金泉驛下車——晝食後 汽車便으로 金泉發——
龜尾邑着 連日暴雨로 道路破壞不通으로 因한)——善山邑着——邑內面事務所建
物再調——洛山二洞經由——桃李寺着泊

八月十八日……桃李寺 諸遺蹟物再調査(石塔 實測 浮屠 建物 諸懸板、極樂殿內木
佛坐像 阿度和尙事蹟碑 拓木、幀畫、桃李寺事蹟記)——洛山洞三層石塔 實測——
洛山洞泊

八月十九日……洛山洞三層石塔門扉調査——洛山一洞寺址調査(石燈下臺石 實測中
臺石、長大石柱礎石)——寺址(舍利孔이 施孔된 心礎石 實測)——桃開面 道開
二洞의 毛禮의 阿度和尙과 의 열킨 諸傳說聽取(毛禮長家(者)의 毛禮長家생, 羊
친골, 소(牛)친골 立石、桃李寺等)——毛禮長者의 생(泉) 羊친골 牛친골 立
石 等의 確認과 調査——海平面 寶泉寺 着泊

八月二十日……現寶泉寺石佛坐像 實測 및 各部拓本調査하고 泊
八月二十一日……現寶泉寺 發——海平面 靈鐘甕氏藏인 一善志、元·亨·利·貞
四冊調査 그 中 「元」은 複寫、其他語文籍 調査)——長川面 五老洞佛蹟調査(石
佛立像 石燈材 佛臺座(石材 拜禮石)——高老峯磨崖坐像——石塔材——長川面
所在地 着泊

八月二十二日……長川 發——桃開面 新谷洞寺址(現文殊寺)——玉城面 塔谷三層
石塔(現在 國民校庭에 移建된)——善山邑內 圓覺寺木造菩薩坐像 再調——金泉
着泊

八月二十三日……金泉市內 文化현타藏 諸遺物調査(各種土器와 石物)——金陵
郡 開寧面 東部洞磨崖地藏菩薩坐像——同郡 甘文面 廣德洞磨崖觀音菩薩立像——
下午 金泉市 着 上京

◎ 義城 石窟寺址 調査

지난 八月二十八日 義城郡 比安面 自樂洞 뒷산인 海望山 東麓에서 高麗時代로
추정되는 石窟寺院址가 調査되었다.

本窟·羅漢窟·僧室窟의 三窟이 卍字形절벽 아래 기록되었는 것인데 自然石
窟을 손질하여 大石窟을 마련하였다. 入口는 담을 쌓아 窟室을 만들었다.
本窟에는 石佛一軀가 殘存하였으며 羅漢窟에는 菩薩、羅漢片 多數가 흩어져
있었다. (調査者: 文明大)

◎ 法住寺 捌相殿 解體重修

文化財管理局은 國寶 第五五號 法住寺 捌相殿을 重修하기로 되어 解體作業을
準備 中이던 바 文公部 文化財委員 崔淳雨 鄭寅國 兩委員指導、監督官 金周泰
金東賢 兩氏의 監督下에 九月三日 解體作業이 始作되었으며 五層 東西柱 道里
에서 天啓六年 墨書銘이 發見되었다.

法住寺 通信 (一)

金 東 賢

一九六八年度 文化財管理局 文化財補修事業의 하나로 法住寺 境內 國寶 第五
五號 捌相殿 完全 解體復原工事が 計劃되어 忠淸北道 教育委員會와 七星建設株
式會社(代表 林德昌) 사이에 지난 五月二十六日 契約이 成立된 바 있다. (總工事
費 一〇、五三九、二二六圓) 그後 浮城假設工事が 三層까지 進行된 다음 文化財
委員會側의 監督陣(指導委員으로 崔淳雨 鄭寅國 兩委員、現場監督에 金周泰 金
東賢)이 決定되어 七月六日 監督陣 一行의 現場調査가 있었다.

現場에서 指導委員과 監督間의 討議 結果 既假設된 檢査는 解體하고 現場監
督의 指示에 依據 檢査를 다시 假設키로 하고 假屋蓋 및 部材 保管 倉庫도 追
加 架設를 協議되었다.

檢査의 假設工事は 八月一日부터 着手되었고 이에 併行 部材 倉庫도 架設되
어 八月二十日 完了되었다.

假設工事が 完了된後 崔淳雨 鄭寅國 兩指導委員의 檢閱을 받았다. 檢閱時 浮
城架設에 있어 萬一의 事故에 對한 防止策으로 部分的인 追加補強을 한 후에 解

體着手托 指示되었다.

八月二十八日 一層 蓋瓦로부터 解體가 始作되어 八月三十一日 五層 蓋瓦解體가 完了되었다.

九月一日 文化財委員會側 崔淳雨 指導委員이 現場에 到着, 解體節次를 檢討했고 忠北道知事를 訪問, 이 工事의 推進에 따르는 施工廳으로서의 措施와 支援을 要請해서 即刻 道職員の 現場配置 및 警察官의 警備措置 等이 取해졌다.

木部 解體는 九月二日 五層 椽木부터 着手되어 九月九日 五層 全體가 完了되었다. 五層 解體 中心柱 二本을 解體하고 相輪部는 假屋蓋 施設時 이미 解體하였다.

相輪部는 頂部가 南西로 約十五度 기울고 露盤은 水平에서 約三寸 같은 方向으로 傾斜를 이루었다.

五層 椽木의 大部分은 後補의 것이 많았고 狀態는 良好한 편이었다. 春舌는 心柱에 주먹장부로 끼웠으나 四個 모두 빠져나오고 머리의 沈下는 南西와 北西의 것이 가장甚하고 南東의 것이 狀態가 良好하였다. 그러나 腐蝕度로 보면 東北의 것이 再用될 수 있을 뿐 他 三個는 再用이 어려울 것 같다.

拱包는 隅包 및 空間包 모두 變位 歪曲되었다. 四天柱 最上部分부터 하여 올린 괴를자임 上部의 東과 西의 內目道里 밖에 서 墨書의 上樑文이 發見되었다(後稿로 미물). 墨書狀態는 比較的 良好하여 判讀이 可能하다. 이 上樑文에서의 年代는 天啓 六年(西紀 一六二六年 仁祖 四年) 丙寅으로 記錄되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一六二四年 甲子年과는 二年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九月十日 現在 四層 拱包가 解體 中에 있다. (一九六六年 九月十日)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清平寺 文殊院記碑片의 調査

黃 壽 永

江原道 春城郡 北山面 清平山 清平寺는 高麗 眞樂公 李資玄 隱棲의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땅으로서 이름 높다. 그는 이곳 山水의 幽絶함을 사랑하여 二十八歲에 捐官入山한 후 享年六十五로 이곳서 入寂(仁宗三年 一一二五年)하기까지 三十七年間 머무르면서 禪寂을 偏愛하였었다. 그 후 이 寺院에는 高麗 朝鮮 兩朝를 통하여 名僧 大德의 住錫이 잦아서 指空 懶翁 金時習 普雨^①의 이름이 또한 傳하고 있다. 동시에 詩人墨客으로 이곳을 찾은 人士가 그치지 않았으며 近世에 이르러서는 愚潭 丁時翰이 이곳에 이르러 仙洞息庵에서 數日을 滯留하면서 寺觀의 모습과 眞樂公의 遺跡을 두루 찾아 그 高風을 追慕하고 「若出世外 思欲構成數間茅屋 追蹤前修 以終餘日天果 遂吾願」이라고 그의 「山中日記」에서 吐露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名刹도 韓末에 이르러서는 거의 廢寺의 지경에 이르러서 오직 極樂殿을 비롯하여 廻轉門(現存 寶物一六四號)과 寮舍 數棟을 남겼을 뿐이며 古碑로서는 일찍부터 이름 높던 「眞樂公重修文殊院記碑」(仁宗八年 一一三〇建立)만이 上下에 破壞된 모습을 지니면서 僅存하고 있다(大正元年 關野貞·朝鮮古蹟調査表 및 遺蹟寫眞目錄 葛城末治·朝鮮金石攷 參照).

이같은 寺勢는 日政期를 통하여 크게 變함이 없었던 듯 한데 다만 이곳에서 말하러 하는 文殊院重修記碑만은 一九一四年에 이르러 座碑에서 뽑아 木箱子에 넣어서 保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楡帖寺本末寺誌^② 清平寺條(六九八頁)에 「古碑는 大正三年 十二月十九日 郡守 申圭善 郡書記 朝田直夫 雇員 姜漢求 立會下에 櫃中에 入하여 國寶로서 極樂寶殿에 藏置하다」고 하였다. 그 후 이 碑石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기사는 아니 보이나 日政期 寶物로 指定된 이 極樂殿과 더불어 無事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碑石이 受難케 된 것은 解放後 數年이 지난 一九四九年 十二月五日 本寺에 居住하던 一精神異狀者의 放火로서 極樂殿이 全燒되었을 때라고 생각된다. 清平寺는 그後 다시 動亂의 一·四後退 이후 能仁殿등이 爆擊으로 全燒될 때 다시 그 속에서 再次 災難을 당하고 그대로 埋沒되었다고 생각된다. 極樂殿址가 아니고 그 밑의 能仁殿址에서 出土된 까닭은 아마도 極樂殿 全燒後 收拾된 碑片을 다시 能